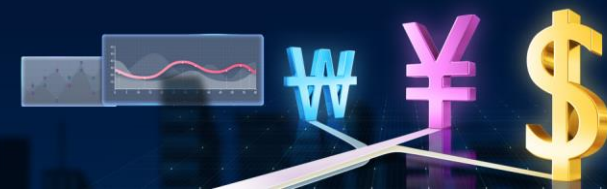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 (2023.3.2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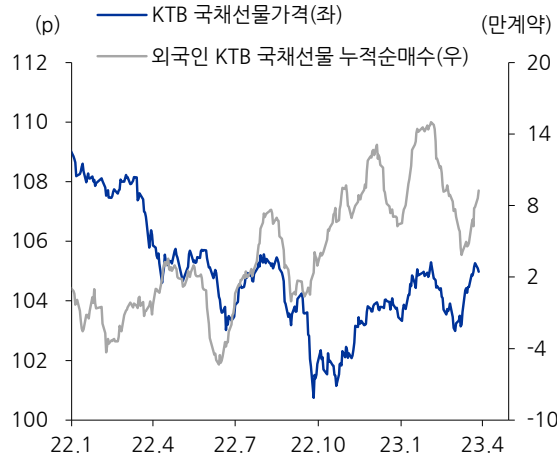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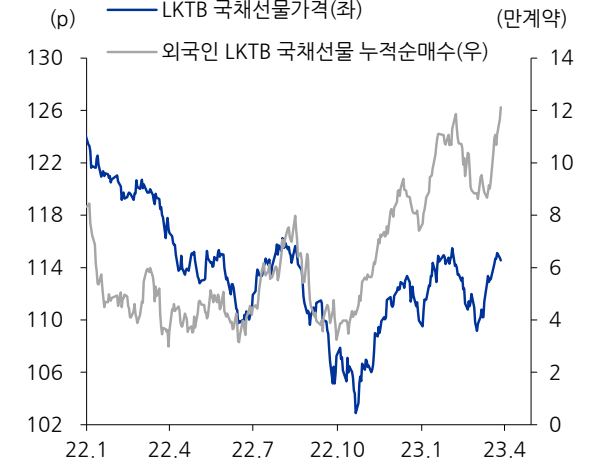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3/28일	1D	1W	YTD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258%	3.8	-3.6	-46.4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281%	2.3	-2.3	-44.9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2.3	3.8	1.0	0.8
	3년 국채 선물(KTB)	104.98	-11.0	13.0	153
	10년 국채 선물(LKTb)	114.56	-18.0	26.0	461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068%	7.0	-9.5	-35.2
	미국채 10년물	3.565%	3.0	-4.3	-31.3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50.3	-46.3	-55.5	-54.2
	독일국채 10년물	2.282%	5.7	-1.0	-28.3
	호주국채 10년물	3.298%	10.4	10.4	-75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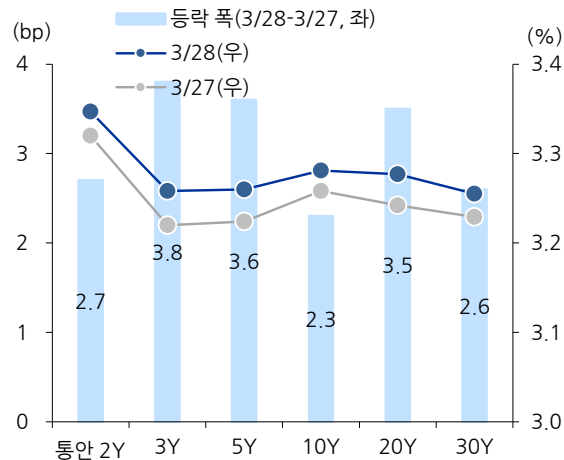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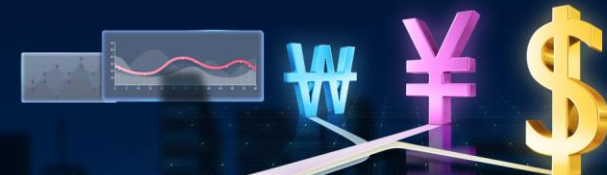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 특별한 국내 재료 없는 가운데 대외 상황에 따라 변동성 지속.
- 간밤 퍼스트 시티즌스의 SVB 인수 소식으로 대외 금리 급등한 영향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점점 금리 상승폭 반납.
-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했고,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가 확인됐기 때문. 국고채 20년물 입찰 강하게 시행됐지만 전일에 비해 그나마 경쟁 덜했음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 금리 상승폭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단기금리 위주 상승.
- 은행 위기에 대한 청문회에서 당국자 발언들 이어지면서 위기감 경감. BOE 총재는 영국 banking 시스템이 강하다고 자신했으며,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도 SVB 사태를 잘못된 경영으로 언급하며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강조.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도 호조를 보이며 금리 상승 견인.
- 금일 호주 2월 CPI 및 미국 열린 재무장관과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의 의 하원 증언이 예정. 은행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드러내며 시장 우려 진정시키려 노력할 것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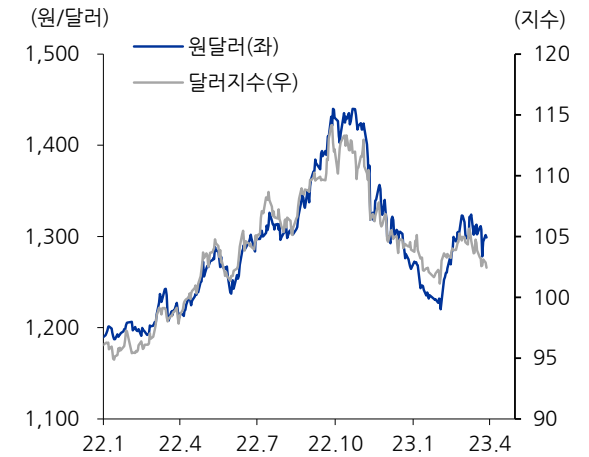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3/28일	1D	1W	YTD
원/달러	1,298.80	-0.2%	-0.9%	2.7%
달러지수	102.44	-0.4%	-0.8%	-1.0%
달러/유로	1.084	0.4%	0.7%	1.3%
환율				
위안/달러(역외)	6.88	-0.1%	0.0%	-0.6%
엔/달러	130.88	-0.5%	-1.2%	-0.3%
달러/파운드	1.234	0.4%	1.0%	2.1%
해알/달러	5.17	-0.6%	-1.5%	-2.3%
상품				
WTI 근월물(\$)	73.20	0.5%	5.6%	-8.8%
금 현물(\$)	1,973.52	0.9%	1.7%	8.2%
구리 3개월물(\$)	8,957.00	-0.1%	2.3%	7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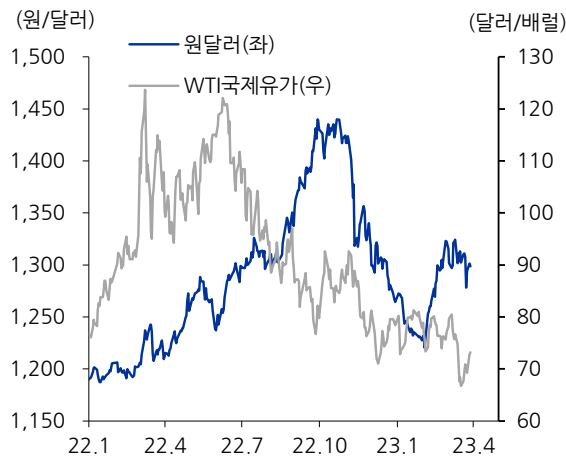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전일 원달러 환율은 -2.70원 하락한 1,298.80원에 마감. 하루 만에 1,300원을 하회.
- 간밤 미국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의 SVB 인수, 미 금융당국의 은행 유동성 지원 확대 고려 등에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. 전거래일 대비 -4.50원 하락 출발.
- 오전 중 달러가 추가 하락하면서 원달러도 1,293원 선까지 낙폭을 키웠으나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 유입에 반등. 이달 연초 이후 누적 2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적자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.
- 이후 위안화 환율에 연동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. 장중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으나 영향은 제한적이었음. 국내증시는 상승마감했으나 외국인인 국내 주식시장에서 1,800억 원 가량 순매도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-0.4% 하락한 102.44 기록.
-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달러는 약세 지속.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모든 기관에 모든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.
- 전일 발표된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4.2로 시장 예상치 100.7을 큰 폭 상회. 대부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개선. 고용시장 여건을 나타내는 '일자리 풍부 - 부족' 지표는 2개월 연속 둔화. 1월 S&P/CS 전미주택가격은 -0.2%(M) 하락해 7개월 연속 하락.
- 시장은 조금씩 다시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4%에 안착. 은행 시스템 안정되면서 5월 금리 인상 시각도 확산되는 중.